

다시 잿빛 하늘...어김없이 찾아온 미세먼지

광주 이틀 연속 '나쁨' 등급 복서풍 타고 중국서 유입 내년 봄까지 '나쁨' 잦을 듯

맑고 청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던 '가을 광주'에 이틀 연속 '나쁨' 등급의 초미세먼지가 찾아왔다.
16일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광주 지역에 '나쁨' 등급(36~75 $\mu\text{g}/\text{m}^3$)으로 초미세먼지(PM2.5)가 관측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광주의 초미세먼지 일 평균 농도는 광주도심 5개 측정지역 기준으로 ▲주월동 67 $\mu\text{g}/\text{m}^3$ ▲오선동 61 $\mu\text{g}/\text{m}^3$

▲서석동 58 $\mu\text{g}/\text{m}^3$ ▲두암동 53 $\mu\text{g}/\text{m}^3$ ▲송정1동 36 $\mu\text{g}/\text{m}^3$ 등 모든 곳에서 나쁨 등급 기준인 36 $\mu\text{g}/\text{m}^3$ 에 육박하거나 웃돌았다.
전날인 15일에는 측정지역 5곳 중 송정1동(23 $\mu\text{g}/\text{m}^3$)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6 $\mu\text{g}/\text{m}^3$ 를 넘기도 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 2.5 μm 이하의 작은 입자로 구성된 먼지로 인체에 치명적인 진폐증과 폐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전문가들은 난방시즌인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몰아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번 겨울에도 광주·전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내년 2월까지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됐다.
여름철에는 남풍이나 동풍이 불어 미세먼지를 막아주면서 상대적으로 공기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겨울에는 바람이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중국내 황사 등 오염된 먼지가 국내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최근 난방철을 맞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중국의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더해지고 여기에 국내에서 대기 정제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세먼지 농도가 더해졌다는게 에어코리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지난 3월 환경부가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등급을 보이는 날도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나쁨' 등급을 기존 51~100 $\mu\text{g}/\text{m}^3$ 에서 36~75 $\mu\text{g}/\text{m}^3$ 으로 강화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질 예보를 통해 17일에는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기 상태가 대부분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부 남부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축적돼 다소 농도가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어코리아 관계자는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내년 2월까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관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1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 때문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다. 이날 광주는 이틀 연속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비리 유치원 명단 광주 6곳·전남 99곳

느슨한 감시망을 틈타 수년간 꼬아오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불거진 유치원 비리에서 광주·전남도 예외가 아니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실명 공개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 6개 유치원에서 43건, 전남 99개 유치원에서 318건이 부적절 행위로 적발됐다. 광주는 2016년, 전남은 2013년부터 감사 결과가 반영됐다.
광주 A유치원은 근로계약도 없이 원장 배우자에게 사무직급 급여 200만원 등 모두 620만원, 지출증빙서에 '선물 구입'으로 적어놓은 원장 어머니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 원장 개인이 가입한 단체에

회비로 520만원을, 개인 차량 주유비용으로 530만원을 교비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최근 3년간 교비로 30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전액을 회수하라는 처분에 대해 이 유치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에서는 학사 71건, 인사 11건, 회계 165건, 보수 9건, 복무 1건, 기타(일반행정) 61건 등이 적발됐다.
B유치원은 10년 넘도록 근무한 운전원, 조리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추진비로 운영위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거나 인가 규모를 초

과한 반면성으로 정원 외 관리 원생을 둔 유치원도 있었다. 개인 차량 유류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광주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비리 유치원 연단 및 감사강화 목소리에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 하반기 감사대상 유치원을 5곳으로 결정했던 것을 백지화하고 최대 20~30곳(전체 180여개)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관실 인력뿐 아니라 예산회계 자료 등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전 부서에서 지원받아 연말까지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시 유치원 비리 감시를 위해 유치원 전담 감사팀을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내년 초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고교 과정 벗어난 입시 문제 GIST 등 3개 대학 시정명령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비롯한 3개 대학이 지난해 입시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난 구술·면접문제를 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2년 연속 시정명령을 받은 광주과학기술원은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모집 정지당할 상황에 놓였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경주캠퍼스)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결론짓고 시정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0 해질 17:56 달뜨기 13:53 달짐 ---

산발 조짐
건조한 가운데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다.

광주	맑음	9/19	보성	맑음	7/18
목포	맑음	12/19	순천	맑음	10/20
여수	맑음	13/20	영광	맑음	9/18
나주	맑음	7/19	진도	맑음	12/18
완도	맑음	12/19	전주	맑음	8/19
구례	맑음	7/19	군산	맑음	9/18
강진	맑음	9/20	남원	맑음	6/19
해남	맑음	9/19	축산도	맑음	15/18
장성	맑음	7/1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2.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5~2.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면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면바다(서)	북~북동	0.5~1.5	북서~북	1.5~2.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0:51 12:22	07:08 20:09
여수	07:38 22:43	01:35 15:37

◇주간 날씨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	☀	☀	☀	☀	☁	☀
7/18	8/20	7/20	8/21	10/20	11/21	10/21

◇생활지수

- 관심: 식중독
- 보통: 자외선
- 한대 나쁨: 미세먼지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내국인 일자리 잠식 심각

광주출입국사무소 계도 활동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자진 출국을 독려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강도높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우석환)는 16일 새벽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광주시 광산구 일대 새벽 인력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취업·고용 방지 및 자진 출국안내 등의 계도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수는 지난 2016년 20만 8000여명에서 2017년 25만 1000여명, 지난 8월말 기준 33만 5000명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건설업 분야 등에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면서 "불법체류자 방지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빛원전 창고·사무실 등 소방안전 불량 대거 적발

영광 한빛원전 내 창고, 사무실 등이 소방안전시설 상태 불량으로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영광소방서는 "지난 8월 21~24일 한빛원전 발전소를 제외한 자재창고, 사무동 등을 특별 안전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4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발전소

점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할이다.
영광소방은 지난 8월 12일 한빛 2호기 정비용 자재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이번 특별 점검에 나섰다. 당시 원전 자체소방대가 진화에 나서 화재 발생 23분 만에 별다른 피해 없이 불을 꺾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거든 두근픈 목 가랴!!

일시 2018. 10. 21(일) 09:30~
장소 모교 운동장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노동일